

2019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9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8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18년 11월 5일

II. 201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 출

-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5억 4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0.07% 비중임.

전년도 최종예산 1억원에 비해 254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이중 사업비는 3억 7천 6백만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밖에 기본경비는 1억 2천 7백만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됨.

<표 1> 2019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최종예산	2019 예산안	2018년대비 증 감	증감을
예산외계	소 계	100	25,504	25,404	25,404
	기본경비	-	127	127	-
	재무활동	100	25,000	24,900	24,900
	사업비	-	376	376	-

- 세출 예산은 남북협력추진단이 금년 1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포함한 총 4건의 신규사업비 3억 7천 6백만원과 기본경비 1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전년대비 249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편성됨.

○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남북협력담당관 】 253억 8천 2백만원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2억 3천 9백만원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5천만원
- 기본경비 9천 3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50억원

【 개발협력담당관 】 1억 2천 2백만원

-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3천 2백만원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5천 6백만원
- 기본경비 3천 4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용 중임.
-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9억 9천 2백만원과 2019년 증가분 104억 3천 3백만원을 합한 244억 2천 5백만원임.
-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53억 3천 3백만원으로,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4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65억 9백만원, 이자수입 4억 8천 3백만원이며,
 -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50억원, 예치금 202억 8천 3백만원, 기본 경비 5천만원임.

<표 2>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35,332,516	10,875,411	24,457,105	합계	35,332,516	10,875,411	24,457,105
전입금	25,000,000	100,000	24,900,000	비용자성 사업비	15,000,000	7,000,000	8,000,000
예탁금 원금회수	3,341,200	3,341,200	-	기본경비	50,000	100,000	△50,000
예치금회수	6,508,549	7,206,238	△697,689	예치금	20,282,516	3,775,411	16,507,105
이자수입	482,767	227,973	254,794	-	-	-	-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2019회계연도 예산안

가. 남북관계 동향 및 전망

- 2018년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미 대화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난 11월 25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나.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

-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음.

<표 3> 서울시 남북교류사업현황(2005 ~2010)

연도	신청지역	사업(명칭)	사업내용(지원내용)
2005	평양	아동 제과원료 지원	설탕, 밀가루 등
2006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행사비 지원
2007	함경북도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항생제, 연막소독기 등
2008	평양	의료장비 지원	엑스레이, 의료소모품 등
2009	평양	옥수수 지원	옥수수 2,500톤
2010	신의주	수해 구호물품 지원	밀가루 500톤

-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촉발된 5.24 조치와 국제적 대북제재 등으로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만 추진되어 왔음.
- 지난 2016년 11월 서울시는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협력담당관 4급 기구를 신설한데 이어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승격시켜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법인·단체를 포함한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승인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법 제도적 한계가 있음.

다. 세입·세출 총괄

(1) 세입

-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

-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0.07%인 255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1억원 대비 254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4>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예산(안)	2018 최종예산	증 감	
			예산액	증감비율(%)
서울시	35,784,344	35,608,127	176,217	0.5
남북협력추진단	25,504	100	25,404	25,404
비중(%)	0.07	0.0003	-	-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포함한 총 4건의 신규사업비 3억 7천 6백만원, 기본경비 1억 2천 7백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이 전년대비 249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5> 2019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최종예산	2019 예산안	2018년대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소 계	100	25,504	25,404	25,404
	기본경비	-	127	127	-
	재무활동	100	25,000	24,900	24,900
	사업비	-	376	376	-

라. 신규사업 검토

-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3억 7천 6백만원으로 4건의 사업 모두 신규 편성되었음.¹⁾

<표 6>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19년 예산(안)
남북협력담당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239,218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50,000
개발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31,540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55,680
총계	4건	376,438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제8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

(1)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사업별설명서 p.15〉

- 이 사업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과 평양에 대한 정보교환,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8천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천 8백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천 4백만원, 대민활동비 1천 8백만원임.

<표 7>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	239,218	239,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718 ■ 사무관리비 179,5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0 ■ 특정업무경비 18,000

-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이며, 양 도시간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임.

<표 8>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
사회문화교류	서울-평양(경평)축구, 서울-평양 교향악단 교류 등 문화·체육 교류
경제·개발협력	산업협력, 전자정부, 산림협력, 환경협력, 보건협력
도시인프라 협력	도시재생·계획, 도로·교통, 도시안전, 상·하수도(대동강 수질개선)

※자료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2016년 11월).

-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북제재 완화 등과 연계하여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류 대상인 평양시의 참여 없이 포럼과 도시협력 분야를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측 관계자의 참여²⁾를 전제로 분야별 과제를 재선정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의 경우,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측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은 없으며, 단지 실무 협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개최에 3천 7백만원,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 운영에 4천 3백만원,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언론사 홍보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 포럼과 세미나를 위한 행사 운영비보다 많은 1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2) 경기도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관한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북측 대표단으로 참석함.(2018. 11.16, 뉴스스)

(2)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사업별설명서 p.20〉

- 이 사업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9>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	50,000	50,000	■ 기획, 원고 작성 및 편집· 디자인 등 30,000 ■ 백서 발간 및 인쇄·배포 20,000

- 백서에는 2004년 5월 북한 용천역 폭발 피해 지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성과와 2016년 11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구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을 담을 계획임.
- 백서는 총 2,000부를 발간하여 서울시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424개 동)에 2부씩 배포하고, 서울시 실국과 사업소에 약 400부 등을 배포할 계획임.

<표 10>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배포계획(안)

구 분	대 상	부 수
합 계		2,000
필수배부처	국가기록원	3
	서울도서관	17
서울시	실·본부·국·과	200
	직속기관 및 사업소	188
자치구	25개 자치구	50
	424개 동	848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통일부	10
	통일교육원	10
지자체	16개 광역자치단체	3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0
민간단체 및 공공도서관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100
	공공도서관	19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원	120
기타	부서 비치, 홍보기관 배포, 행사주최 시 배포 등	200

- 남북교류협력의 지난 성과를 정리해 향후 남북교류협력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당초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백서 발간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간 교류가 우선 추진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백서 발간만으로 일반시민들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백서의 구성과 내용이 자칫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홍보로 비취지지 않도록 발행과 배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3)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29>

-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강좌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시민인식 제고와 남북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9년도 사업비는 3천 2백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분야 시민 대상 8회의 강의로 4백만원(2시간 50만원×8회)과 대관료 600만원 등을 포함한 강좌 개설 및 운영비로 2천 3백만원, 판문점, JSA 등 현장견학비용 230만원 등임.

<표 11>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남북교류협력 시민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	31,540	3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5,3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 행사실비보상금 2,240

- 최근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³⁾ 시민인식 확산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독자적인 시민아카데미를 개설하기 보다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업(평생교육국)⁴⁾’으로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강좌 등의

3) 통일연구원 ‘통일국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58.6%가 ‘분단과 통일은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함(통일연구원, 2017).

4)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서울 전역에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학습권 보장 및 시민주도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3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28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일 수 있음.

- 또한, 강좌 1회당 수강생을 40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분야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좌 수요에 맞춰 강의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공자산을 활용해 부대비용(대관료)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별설명서 p.32>

-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지원 수행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5천 6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표 12>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 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	55,680	55,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49,000 ■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4,000 ■ 행사실비보상금 2,680

- 현재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특화된 민간단체는 통일부의 '인도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대북인도지원 단체 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⁵⁾ 소속 58개 단체와 비등록 단체 등이 있음.

5)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 간 상호 협력 가능한 사업과 정보 교환 촉진,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대북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58개 단체로 구성됨(※ 자료 : www.knecck.or.kr).

- 이 사업은 연간 2회의 강의(7강)와 1박2일 실무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참가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검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비정부기관(NGO) 중심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 상생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민간단체간 사업 범위와 역량에 차이가 있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서울시 예산으로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회 소속 실무자만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이 사업의 목표를 보면, 각 강의 회당 출석률이 평균 70%로 산출하고 강사진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추후 사업계획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⁶⁾

6)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을 비롯한 일반 교육 강사에 대한 서울시의 강사수당 등에 관한 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2시간 50만원은 특별2급으로 언론사 대표,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이 해당됨.

2.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서울시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과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4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139억 9천 2백만원 대비 74%(104억 3천 3백만원) 증액되었음.

<표 13>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13,992,246	25,482,767	15,050,000	10,432,767	24,425,013

○ 201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지출 규모는 353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244억 5천 7백만원) 증액되었음.

-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5억 9백만원, ▶이자수입 4억 8천 3백만원임.

-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용자성 사업비 150억원, ▶예치금 202억 8천 3백만원, ▶기본경비 5천만원임.

<표 14>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35,332,516	10,875,411	24,457,105	합계	35,332,516	10,875,411	24,457,105
전입금	25,000,000	100,000	24,900,000	비용자성 사업비	15,000,000	7,000,000	8,000,000
예탁금 원금회수	3,341,200	3,341,200	-	기본경비	50,000	100,000	△50,000
예치금회수	6,508,549	7,206,238	△697,689	예치금	20,282,516	3,775,411	16,507,105
이자수입	482,767	227,973	254,794	-	-	-	-

나. 기금 지원 현황

○ 최근 3년간(2016 ~ 2018)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음.

- 2016년도의 경우 기금 사업비로 55억원을 편성했으나 6억 4천 4백만원만 지출하여 11.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 34.7%, 2018년 43.3%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15>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 및 사업실적

연 도	편성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2016	5,500	644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9)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6)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1차) (173)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94)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6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8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59) ■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 (75)
2017	5,500	1,907	3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50)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20)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5)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2차년도) (319) ■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13) ■ 2017 서울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34)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32) ■ 2017 통일테마전 지원 (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500)
2018 (10.31. 기준)	7,000	3,028	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09)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56)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351)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32)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민 홍보 등 (68) ■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117) ■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 지원 (236) ■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347) ■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지원 (50) ■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32) ■ 대북 인도적 지원(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지원 (1,030)

- 실제로 올해 계획되었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36억 5천만원), ▶남북교류 기념포식 설치사업(1억원), ▶평화통일 체험관 운영(1억 5천만원), ▶남북교류 백서 발간 사업(5천만원) 등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개성공단 폐쇄(2016. 2월)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임.

다. 주요사업 검토

〈사업별설명서 p.41〉

-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분야 110억 4천 8백만원, ▶통일기반 조성 분야 10억 4천만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 25억원, ▶기타 사업비 4억 1천 2백만원임.
-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분야 중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개량사업(10억원)은 대동강변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북한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⁷⁾(30억원)과 경평축구 재개(24억원)등 체육교류사업 54억원,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 상호 방문공연과 서울-평양 아트비엔날레 추진, 평양일대 고구려 왕궁 등의 문화유적 공동 발굴 조사 등의 문화예술교류사업(31억 8천만원)은 단기성,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임.

- 평양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10억원)은 평양과 서울간 글로벌 도시(S7)⁸⁾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

-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낮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고려할 때 평양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시행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또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항공권과 숙박비 지원 2억 6천만원, 행사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소모성 경비 지출로 과도하게 편성한 바, 사업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사업의 경우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사업'의 가교가 될 우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서울시 실무 부서,

7) 제100회 전국체전은 서울시가 주최하며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 까지 7일간 잠실 주경기장을 주무대로 6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8)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협력·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세계도시간 국제기구로, 현재 146개 회원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역임하고 있음. S7은 한반도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글로벌 도시를 말함(서울, 평양, 베이징, 도쿄, 워싱턴DC, 모스크바, 싱가포르).

남북교류협력위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 사업과 산출 근거없이 25억원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이처럼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9)에 위반되므로 시정이 요구됨.

○ 또한, 기금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9)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